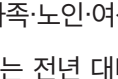


## 독일 GERMANY



### 독일, 2020년 관련 예산 11억 유로 증액으로 돌봄지원 및 여성폭력 방지 지원 확대

채혜원 독일통신원

독일 연방 정부는 2020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예산을 118억 유로(한화 약 15조 6,202억 5,000만 원)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억 3,600만 유로(한화 약 1조 5,037억 8,000만 원)가 증가한 결과다. 2020년 예산은 가족 지원과 폭력 피해 여성 지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 강화법(Stärke-Familien-Gesetz) 지원을 늘린다. 연방 정부는 아동 보조금 예산을 2019년보다 3억 가가이 늘린 8억 6,900유로(한화 약 1조 571억 원)로 결정하면서,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을 받는 아동 수를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는 120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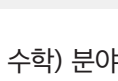
지난해에 이어 '부모수당(Elterngeld)'은 계속 증가한다. 독일 정부는 전체 임금과 급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수당이 늘어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부모수당'은 지난해보다 3억 9,500만 유로가 증가해 총 72억 5천만 유로(한화 약 9조 5,805억 원)가 될 예정이다. 독일의 육아휴직 수당인 '부모수당'은 총 14개월 동안 출산 직전 월급의 약 65~67% 정도를 지급한다.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2개월(한 명이 12개월 이상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반드시 써야 하며, 출산 전에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를 지급한다.

보육 예산도 증가했다. 먼저 전일제 보육(Ganztagsbetreuung) 예산이 확대된다. 연방 정부는 아이들을 위한 전일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해 2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과 2021년에 먼저 각각 5억 유로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예산 계획에 배정된다. 좋은 육아(Gute Kinderbetreuung)를 위한 예산도 연이어 늘어난다.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예산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2020년에는 10억 유로가 책정된다. 이 예산은 각 주정부에 지급된다. 보육 시설과 관련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더 좋은 보육 서비스 개발과 다언어 교육 등 9가지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2020년 예산 증가 요소의 핵심 중 하나는 '폭력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다. 2019년에 새로 시작된 '여성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은 약 3천 5백만 유로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2023년까지 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대한 투자로 총 1억 2천만 유로가 책정되었다. 연방 정부는 특히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성폭력과 관련된 영향을 받은 이들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가족 영역에서의 성적 학대'에 관한 지원 예산을 2019년 2,840만 유로에서 2020년 4,540만 유로(한화 약 599억 9,383만 원)로 늘린다. 기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가족의 소득 보전 및 보육 확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큰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보육 시설과 초등학교에서의 좋은 보육과 교육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일·가정 양립과 아동 빈곤퇴치를 도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증오, 폭력과 학대에 반대하고 이와 관련한 희생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 독일 GERMANY



### 독일, '민트와 함께 하자(Komm mach MINT)' 추진 등 STEM 분야 여성비율 제고 노력

채혜원 독일통신원

최근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여성 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보조금 확대', '연구 분야 고위직 여성 확대', '청소년기 성평등한 직업교육 실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독일 언론 '도이체벨레'는 STEM 분야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보도했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과학 연구자는 전 세계 과학 연구자의 3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수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영역에서 고위직을 맡는 일이 적으며, 남성 동료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뮌헨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 역시 과학 분야 신입 연구자는 여성이 되는 경우가 높으며, 고위직에서 일하는 시니어 경력자는 남성인 경우가 높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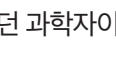
STEM 분야 성별 불평등은 여성의 진로 이탈 현상을 일컫는 '새는 파이프라인(leaky pipeline)'에 의해 뒷받침된다. STEM 영역의 특정 단계에서 여학생들은 이탈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공부한 후 대학에서 더 이상 STEM 영역 공부를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졸업하기 전 다른 전공으로 바꾸거나, 졸업 후 다른 분야 커리어를 선택하는 경우 등이다. 이렇게 여성이 남성보다 파이프라인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큰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 '여성 스스로 갖는 자기 고정 관념', '임신 및 출산 외에도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결에는 '주요 보조금 지원'이 여성 연구자의 경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해 미국 국립종합의학연구소는 미국국립보건의원의 주요 연구 보조금을 받은 여성 과학자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 과학자 안에서도 오랜 경력을 쌓은 여성에게 보조금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연구기간(1991년~2010년) 동안 여성 연구자의 1/3만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학·공학·의학 국립 아카데미 자료는 STEM 분야 여성 연구자가 부족한 원인 중 하나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리더가 부족한 것은 개인적인 상호 관계, 동료 평가와 같은 평가 과정, 조직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와 아이오와 주립 대학의 연구 결과도 위 연구 결과와 맞닿아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남성은 일 자체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팀은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STEM 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관심을 높여려는 노력은 아이들이 성역할과 적절한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는 MINT(수학, 정보통신, 자연과학 공학) 분야 여성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기술 직업군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니셔티브 '민트와 함께 하자(Komm mach MINT)'는 여성이 학교나 회사 등에서 MINT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 교육 연구부는 '민트와 함께 하자'에 매년 약 3백만 유로(한화 약 39억 6,291만 원)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연과학과 공학 영역의 1학년 여학생 비율을 5%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네덜란드 NETHERLANDS



### 네덜란드 에인트호벤 공대, 여성만 지원가능한 교수 채용 실시로 여성교원 비율 증대 노력

김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6월, 에인트호벤 공과대학교(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는 앞으로 최소 약 18개월 동안 여성만 지원할 수 있는 교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바로 이번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이렌 큐리 펠로우십(Irene Curie Fellowship)이라 불린다. 본 프로그램은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과학자였던 마리 퀴리(Marie Curie) 박사의 장녀였던 이렌 큐리(Irene Curie)를 기리며 명명한 것으로, 이렌 큐리 박사 역시 방사능 분야 연구로 193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던 과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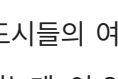
현재 에인트호벤 공대 정교수(full professor)의 약 16퍼센트,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의 약 15퍼센트, 조교수(assistant professor)의 약 29퍼센트가 여성이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앞으로 5년 동안 새로 임명되는 부교수의 최소 50퍼센트, 그리고 부교수 및 정교수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최소 35퍼센트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그동안 남녀 교수 비율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크게 성공적이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기가 이른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교내 여성연구인력간 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Women in Science-Eindhoven' (WISE)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학교 측에서는 교내 연구인력에서의 성비 균형을 위해 본 네트워크의 여성 과학자에 대한 인식 증진과 같은 다양한 행사 추진을 지원하고 이사회(Executive Board) 또는 교내 기타 운영위원회 등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에인트호벤 공대 프랑크 바이엔스(Frank Baaijens) 학장은 이번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배경으로, 남녀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데 그동안 학계 내 남녀 격차 감소에 있어 그 진전 속도가 너무 느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교원 비율을 끌어올려 보다 혁신적이고 진보할 수 있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18개월 이후, 이번 정책의 성과 여부에 따라 여성만 지원 가능한 공식 비율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이렌 큐리 펠로우십을 실시하게 되면서 향후 5년간 약 150여개의 채용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합격된 여성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는 이렌 큐리 펠로우(Irene Curie Fellow)로 채용되게 되는데, 교내 강의뿐만 아니라 교내, 국내 또는 해외 기관 협력기관 내 연구자들과 함께 할 연구 과제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멘토링 및 본인 연구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봉과는 별도로 10만유로(한화 약 1억 3천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새로운 채용 정책에 따르면, 만약 채용 공고 이후 6개월 이내 여성 지원자 중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남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에인트호벤 공대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공과대학으로, 1956년 설립되었으며, 네덜란드를 포함하여 약 8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약 1만1천여 명의 학사 및 석사과정 학생이 수학과 약 1,800여명의 교수 및 연구 인력을 갖춘 공립대학이다(2017년 기준). 이제까지 약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는데, 83퍼센트 가량이 남성, 17퍼센트 정도가 여성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과거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가 시행된 바 있고, 교원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온 만큼, 이번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에게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 캐나다 CANADA



###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 전세계 도시 중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9위와 11위 선정

김영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박사과정

캐나다의 토론토와 밴쿠버가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9위와 11위에 각각 선정되었다.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는 올해 7월 미국 기업 델(Dell Technologies)이 여성 기업가 도시 인덱스(Women Entrepreneur Cities: WE Cities Index)를 가지고 전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의 여성 기업가 친화성을 측정한 토대로 발표한 것이다.

델사는 2010년부터 세계 도시들의 여성 기업인 육성 역량과 여성 기업인 친화성을 자체 개발한 인덱스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 인덱스는 총 다섯 개의 영역인 시장(market), 재능(talent), 자본(capital), 문화(culture) 그리고 기술(technology)에서 총 71개의 세부 측정 항목을 사용하여 도시의 여성 기업인 친화성을 정량화하고 있으며 71개의 측정 항목 중 45개가 전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측정 영역 중 시장 점수 부문은 해당 도시의 인구, 잠재 성장률, 기업체 등 도시의 시장 잠재성을 측정하고 있고, 재능 (talent) 영역은 해당 도시의 기업 임원중 여성의 비율,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 세계적인 수준의 비즈니스 스쿨의 수,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여성의 비중 등을 측정하고 있다. 자본(capital) 영역에서는 여성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데, 벤처캐피탈(VC funds)을 받은 기업 중 여성 임원의 비율이 25% 이상인 기업의 비율, 몇 주의 유급 육아 휴직이 지원되는지 등이 세부 측정 항목이 포함 되어있고, 문화(culture) 영역에서는 해당 도시의 기업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의 빈도, 언론에서 성공적인 여성 기업가를 다루는 빈도, 젠더 차별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하는 정책 유무 등을 통해 도시가 얼마나 여성 기업가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기술(technology) 영역은 스마트폰, 인터넷, 링크드인(Linkedin)을 사용하는 여성의 비율, 페이스북 사용자의 성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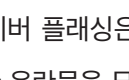
올해 공개된 순위에서 상위 10위를 차지한 도시들 중 여덟 개를 미국이 독식한 가운데, 토론토는 2017에 이어 9위에 머물렀고 밴쿠버는 26위에서 11위로 대폭 상승했다. 아시아의 도시로서는 싱가포르가 2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홍콩이 23위, 도쿄가 34위, 그리고 베이징이 38위로 그 뒤를 따랐다. 한편 서울은 2017년 총 50개 도시 중 50위를 기록하였으나 올해는 41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1위를 차지했던 뉴욕을 제치고 올해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Bay Area)이 올해 가장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뉴욕과 런던, 보스턴, 로스앤젤레스가 그 뒤를 이었다. 델사의 보고서는 베이가 뉴욕을 제친 가장 큰 요인으로 여성 기업가들에 대한 자본 접근성과 여성친화적인 문화에서의 향상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언론 또한 밴쿠버의 순위가 대폭 향상된 것에 대해 자본 접근성과 여성친화적인 문화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밴쿠버에서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에 돌아간 벤처 캐피탈의 금액,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프로젝트의 숫자와 규모, 여성 임원의 비중 등에서 많은 향상이 있어 밴쿠버의 순위가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캐나다 언론은 또한 여성 기업가 친화적인 문화 측면에서도 트루노 행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들과 입법부의 여성 의원 증가가 밴쿠버의 여성 기업가 인구 전반의 증가는 물론 여성의 비즈니스 리더십 부문에서 향상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발전에도 이들 도시 여성 기업가의 자본 접근성은 다소 낮게 평가받고 있다. 밴쿠버의 경우 여전히 벤처 캐피탈의 85%가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에 돌아가고 있는 것은 지난 몇 년간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먼 것을 시사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는 또한 2017년에 비해 문화 부문에서 6위에서 2위로 상승한 것이 올해 1위로 올라가는데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공공 담론이 여성 기업가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완벽하게 여성 기업가 친화적인 도시가 만점인100점을 받을 수 있다면 올해 1위를 한 샌프란시스코 베이조차도 63.7점 밖에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 상위권 도시들조차도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재판 과정 익명 보장 검토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최근 영국에서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와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성폭행과 같은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들처럼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익명을 보장하는 법안을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선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을 상대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퍼뜨리는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 플래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블루투스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포함한 음란물을 무작위로 보내는 행위를 뜻한다. 디메이크는 특정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해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포르노 문제를 야산하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6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 사이버 플래싱과 같은 디지털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요청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해당 법안의 피해자 보호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률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독립 기관이다. 법률위원회는 이번 법안 검토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도 성폭행과 같은 전통적 성범죄 피해자처럼 재판 과정에서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익명을 보장할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과거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 악의적으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는 성범죄법 2003(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거해 처벌받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은 음란물이 공유될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삭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영국 정부는 구체적인 법규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영국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2015년 형사사법 및 범죄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개정 이후 정식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리벤지 포르노를 공유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시행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 4월, 상대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업스커팅: upskirting)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최대 2년 징역에 처하는 불법촬영 금지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이 시행하는 등 영국 정부가 성범죄 처벌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디지털 범죄 피해자, 피해자 보호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폴 메이나드 영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 검토는 최근 정부가 '업스커팅'을 법으로 금지한 것과 동일인 선상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통해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bmfsfj-soll-so-viel-geld-wie-noch-nie-bekommen--staerkung-von-familienfoerderung--vereinbarkeit-und-engagement/136882 (검색일: 2019.7.7.)

- Die Bundesregierung, "Frauen in MINT-Berufen"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ildung/frauen-in-mint-berufen-437948 (검색일: 2019.7.6.)

- Deutsche Welle(2019.6.17), "Women are less visible in STEM: Why?",  
https://www.dw.com/en/women-are-less-visible-in-stem-why/a-49235781 (검색일: 2019.7.6.)

#### 참고자료

- Dutch News (2019.6.18), "Eindhoven University opens academic jobs to women only",  
https://www.dutchnews.nl/news/2019/06/eindhoven-university-opens-academic-jobs-to-women-only/ (검색일: 2019.7.18.)

- The Guardian (2019.7.18.), "Top engineering university to open jobs exclusively to women",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19/jun/18/top-engineering-university-to-open-jobs-exclusively-to-women (검색일: 2019.7.18.)

- Betakit.com(2019.7.15.), "Toronto, Vancouver rise in Rankings of Best Global Cities for Female Entrepreneurs",  
https://betakit.com/toronto-vancouver-rise-in-rankings-of-best-global-cities-for-female-entrepreneurs/ (검색일: 2019.7.15.)

- Dell(2019.7.15.), "2017 to 2019: How 50 Cities Scored on Supporting Women Entrepreneurs Then to Now",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8675751-dell-women-entrepreneur-network-summit/ (검색일: 2019.7.15.)

- Betakit.com(2019.7.15.), "Toronto, Vancouver rise in Rankings of Best Global Cities for Female Entrepreneurs",  
https://betakit.com/toronto-vancouver-rise-in-rankings-of-best-global-cities-for-female-entrepreneurs/ (검색일: 2019.7.15.)

- The Guardian (2019.6.26.) "Revenge porn: Government to review image-based sexual abuse law",  
https://www.bbc.com/news/uk-politics-48760051 (검색일: 2019.7.18.)